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2003(355-375)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흐름의 계층성

문 남 철*

요약 :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신흥산업국의 출현이었다. 이들의 출현은 과거 선진국 중심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남-북 관계에서 신흥산업국 중심의 선진국-신흥산업국-개도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간적 흐름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구조는 일본-신흥산업국-아세안과 중국으로 구분되는 명백한 계층적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역내 직접투자 유입에서, 일본과 신흥산업국은 역외 선진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아세안은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부터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역내 직접투자 유출에서, 일본은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 투자를 보이는 반면 신흥산업국은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높은 투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중국의 역내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신흥산업국에 집중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구조에서 신흥산업국의 중간적 역할과 성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요어 : 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아시아 신흥산업국(ANICs),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계층적 흐름구조

1. 서 론

1) 연구 목적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선진 다국적기업의 공간적 전략에 의한 생산활동의 국제화(globalization)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공산품 수출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남·북간 1차산품과 공산품의 양극적인 국제분업구조는 변질되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형태에 의한 산업의 국제적 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생산기술과 기업조직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국제적 분업구조는 저 임금 노동력을 지닌 국가들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 양분되어 빠르게 변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생산요인의 국제적 차이를 이용한 노동의 신 공간적 분업(new spatial division of labor)은 급속히 공업화에 성공한 신흥산업국(NICs)을 국제분업구조에서 새로운 집단으로 형성시켰으며 새로운 분업구조의 공간적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 신흥산업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진산업국과 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선진산업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장에서 국제분업의 공간적 구조를 전개를 하고 있으며, 이러

*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한 신흥산업국의 역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 성격도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진산업국들에 의해 주도된 해외직접투자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신흥산업국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국 및 해외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한 다국적기업이 주로 비슷한 소득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신흥산업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방향은 선진국에 대한 진출, 동일수준의 개도국에 대한 진출, 후발개도국에 대한 진출로 다변화되어 있으나, 주로 경제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지배적이다(Kumar, 1982; Kumar and Kim, 1984; Lecraw, 1985). 그 결과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공간적 구조도 1970년대 이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계층구조에서 선진국-신흥산업국-개발도상국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계층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새로운 공간적 구조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흥산업국들이며, 이들 가운데에서도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신흥산업국들(ANICs)이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1985년 2.7%, 1985-95년 10.4%, 1996년 14.8%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 중 4/5 이상이 동아시아 신흥산업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 신흥산업국에서 나온 해외직접투자 중 4/5 이상이 동아시아 역내에 투자되었으며, 아세안국가와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도 아시아 신흥산업국에서 유입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UNCTAD, 2000, 2001). 다시 말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흥산업국의 등장은 역외 선진국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과거에 비하여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내 직접투자 구조에서도 신흥산업국의 역할과 성격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신흥산업국의 등장으로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 흐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으로는 우선, 신흥산업국의 역내 직접투자 참여로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동아시아[1] 역내 직접투자 통합과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그룹 간 직접투자 흐름의 계층적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동아시아 신흥산업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중반부터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1990년대 말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직접투자 흐름의 변화[2]와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흐름의 계층구조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통계는 관련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경향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그 중점을 둔 한정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세계의 경제지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하여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우선 파악한 후, 신흥산업국의 등장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산업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선진국(일본)-신흥산업국(한국, 대만, 홍

콩, 싱가포르)-개발도상국(아세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 중국)의 세 그룹[3]으로 구분하여 이들 그룹간의 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룹 내 국가간 직접투자 흐름의 차이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거시경제지리 차원에서 분석의 중점을 두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의 지역적 구분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 강대국 또는 경제집단과 각 대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해외직접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2000년 발행한 'World Investment Directory, Vol. VII(Parts I and II): Asia and the Pacific'와 1992년 발행한 'World Investment Directory 1992, Vol. I: Asia and the Pacific'를 이용하였다. 후자는 대략적으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는 1987년부터 1998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관한 자료는 일본무역진흥회(Jetro)에서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2. 해외직접투자 흐름 구조

세계의 경제문제 분석에서 경제지역은 항상 선진국과 개도국, 북(the North)측과 남(the South)측, 중심(core)과 주변(periphery) 등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류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은 지금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할 때에도 유효한 분석방법이 되고 있다. 즉 세계의 국가들은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선진국가간, 그리고 선진기업의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분과 분석방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활성화된 해외직접투자가 최근까지 주로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선진국가간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4].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신흥산업국들이 해외직접투자에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선진산업국에 의해 주도된 해외직접투자의 공간적 흐름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직접투자 흐름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실제로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1987년 1.9%, 1991년 3.9%, 1995년 13.8%, 1997년 15.1%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6-1990년 개도국에 의해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의 약 70%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유출되었으며, 1991-1996년에는 이들 국가의 비중이 약 86%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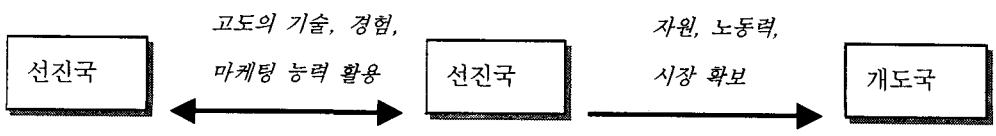

그림 1.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흐름 구조

(단위 :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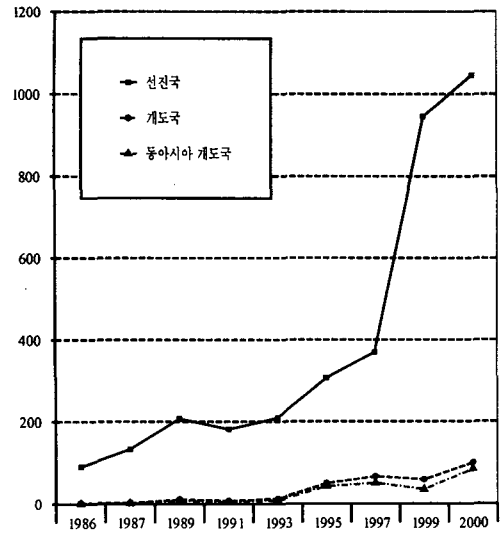

그림 2.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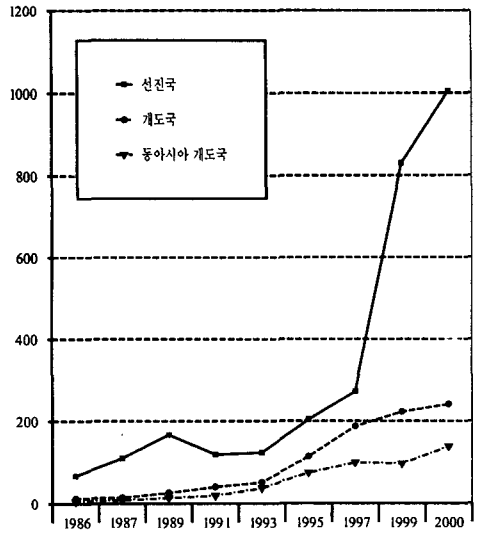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6, 2001

후반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내외환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가 감소되면서 1996-2000년에는 그 비중이 약 78%로 낮아졌으나, 2001년에는 금융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동아시아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전체 개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로 높아졌다. 다시 말해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나온 해외직접투자 중 대부분이 아시아 신흥산업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도 선진국에 집중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선진국 편중화 경향은 1990년대에 들어 약화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개도국으로 크게 유입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1989년 87% 달한 선진국의 비중은 1991년 75%, 1995년 63%, 1997년에는 61%로 떨어진 반면에 개도국 비중은 1989년 13%에서 1991년 25%, 1995년 37%, 1997년에는 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주로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은 1989년 7%에서 1991년 12%, 1995년 20%로 상승하였으며 1996년에는 22%에 달하였다. 또한 전체 개도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비중도 1986년 43%에서 1989년 52%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에는 63%에 달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확산추세는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위기 이후 반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198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증가된 신흥산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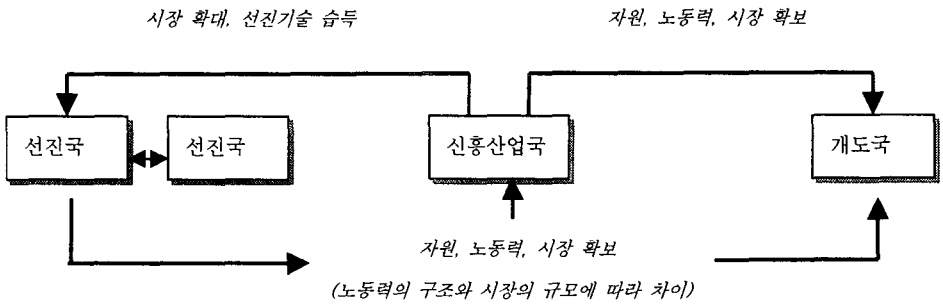

그림 4.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흐름 구조

의 해외직접투자는 비록 일부 신흥산업국이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으로 그 투자대상지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경제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자국의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선진국 기업보다는 신흥산업국의 투자유입이 이들 국가의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지향적 성장정책의 산업환경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신흥산업국으로부터 유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산업국의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 집중과 개도국의 신흥산업국 투자유치 증가로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있어 남-남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흥산업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대되면서 해외직접투자에서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공간에서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새로운 공간적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활발히 진행된 아시아 신흥산업국의 역내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역내 신흥산업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 증대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신흥산업국-아세안과 중국으로 구분되는 해외직접투자 흐름구조가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 국제 분업구조에 관한 연구동향

1970년대 이후 국제분업에 관한 이론은 크게 세계체제론과 신국제분업론, Constance 학파의 국제분업론과 자본 국제화론의 국제분업론, 범세계적 분업론과 범세계적 상품연쇄론의 국제분업론으로 구분되어 발전해오고 있다. 첫 번째 이론의 특징은 국제분업의 체계를 세계체제의 창조물과 상호의존적인 종속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이론은 세계체제와 국가경제차원의 생산부문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분업을 세계 체제적 외적요인과 국가경제의 내부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 이론은 국민적 이데올로기를 거의 표방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과 그들이 수행하는 상품의 연쇄구도가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주요 분석대상도 노동의 생산과정 참여와 분업이라는 전통적인 경향을 벗어나서 금융과 유통을 내포하는 광범위한 부가가치 형성과정 일체를 구명하는데 두고 있다.

1) 세계체제론과 신국제분업론

세계체제론과 신국제분업론에서의 국제분업은 각국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세계체제적 외적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세계체제론자(Wallerstein, 1974)들은 자본주의 실천 결과 중심부(core)-준 주변부(semi-periphery)-주변부(periphery)로 구별되는 지역적 분업구조가 발생되었으며, 주변부나 준 주변부에 속하는 개별국가나 지역은 세계 경제시스템상 중심부에 대한 종속을 통해서 유지되며 준 주변부 국가는 준 주변부의 타국들과 경쟁을 해가면서 세계시장을 확대해 나간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분업구조는 해당 각국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세계체제내의 자본주의적 분업시스템 속에서 국가간의 산업차별화의 심화에 의해 생기는 불평등 가격적 교환-거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간주하고 있다. 신국제분업론자(Fröbel et al., 1979; Jenkins, 1984)들은 신국제분업을 가져온 근본적인 계기를 전통적인 입장인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에 기초하지 않고 매우 정태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임금과 생산입지만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분업을 세계적 자본축적을 위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리된 생산공정의 지리적 분산을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중핵 선진국은 소프트웨어 부분의 특화생산을 담당하고 주변부는 하드웨어 부분의 특화생산을 담당하는 새로운 패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2) Constance 학파의 국제분업론과 자본 국제화론의 국제분업론

세계체제론이나 신국제분업론에서 국제분업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필요와 논리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주변부의 전망 또한 주변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결합된 자기 확장적 경제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심부에 대한 종속을 통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정체와 해외수요의 의존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Constance 학파(Deubner, 1992; Simonis, 1992)는 과거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론에서 보이던 중심국 중심의 약탈적이고 보완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강력한 생산력을 가진 중심국도 현대자본주의의 국제화와 세계 경제·정치체제의 동태적 변화에 의해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고, 국제분업도 선진국과 경쟁적·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신국제분업론자들이 간과했던 국제분업의 패턴의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검토하였다. 세계시장구조의 변화를 통해 신국제분업의 형성과 생산 기술혁신, 교통·통신의 발전과의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1970년대에 와서 세계시장구조는 변환되었으며 기술의 혁신과 생산의 국제화는 선진거대 자본간의 격화된 경쟁의 결과로 필요하게 된 것으로서 개도국들의 자본축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수출주도공업화는 선진 거대자본 측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며 그 결과 신국제분업 경향의 강화로 나타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세계체제론이나 신국제분업론이 국제분업을 세계체제의 창조물로 보았던 견해를 보완하였으며, 또한 신국제분업론자들이 경시하였거나 무시하였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체제적 외적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개선하였다. 신국제분업론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자본의 국제화론이나 조절이론 등에서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본의 국제화론자(Palloix, 1975; Jenkins,

1984; Michalet, 1985)들은 신국제분업론이 보이는 극단적인 종속이론의 입장은 피하고 보다 더 원론적 접근방식과 국제분업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전망에 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자본의 국제화론의 최대의 특징은 전체 자본의 틀 속에서 생산자본을 축으로 하여 자본운동 자체가 국제화되는 것을 현대 자본주의의 뚜렷한 특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기초한 국제분업론은 이론적 측면보다는 맑스주의 전통에 보다 더 충실하게 준수하였으며 국제분업론 분야에 뚜렷한 공헌을 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3) 범세계적 국제분업론과 범세계적 상품연쇄론의 국제분업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국제화와 개방화가 한층 더 진전되었으며, 국제자본주의 축적체계도 범세계적 포드주의가 퇴조하고 그 대신 유연적 축적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지식·기술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으며, 신흥산업국도 보다 높은 부가가치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합하게 지금까지 국제화와 신국제분업론(Internationalization and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으로 대표되던 국제분업론에 대한 논의도 세계화와 범세계적 분업이론(Globalization and Global Division of Labor)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범세계적 국제분업론의 특징은 생산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영 관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중심지역(국가)이 주변지역(국가)과 지역적으로 분업을 조성하고 노동을 재 구분하는 국제분업 형태이다(Mittelman, 1996). 이러한 형태로 홍콩과 대만이 중국의 연안지역과 행하는 국제분업, 싱가포르가 아세안을 축으로 인접국가들과 행하는 국제분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보다 광역적으로 보면 EU와 동부 유럽, NAFTA와 남미 등도 느슨하지만 이러한 패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세계적 분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세계화 현상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의 확장과 그것에 직면하게 된 국가들이 동질적인 문화적 특성과 지리적 인접성을 지닌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성을 추구하려는 지역주의 동기에서 형성되었다. 범세계 분업론은 최근 등장한 범 세계적 상품연쇄론(The Global Commodity Chains)에 의해 계승·보완되고 있다. 이 이론의 특징은 분석단위가 국가가 아닌 산업과 기업이며 이론의 초점은 국제적 기업들의 초국적 생산체제와 생산단위들 간의 기술 및 조직상의 네트워크 내지 연결고리를 검토하는데 두고 있다. 즉 다양한 범지구적 산업 또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경제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접근으로, 이들이 중시하는 네트워크의 형태는 범세계적, 경제적, 지리학적 제 조건들, 지역통합계획, 정부의 정책, 국내제도·문화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임금수준, 숙련 정도, 생산성, 노동조합 등이다. 그리고 범 세계적 상품연쇄론자들은 생산지역들 간의 네트워크와 이러한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각 지역들의 경제적 역학이 세계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상품연쇄론에서 말하는 지역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단순한 지역단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다양한 차이를 지닌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국가별 연결고리는 기술, 재화, 용역, 노동을 포함한 투자자본의 흐름이며, 이 흐름이 내부적으로 구조화되어 지역

분업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중심부 지역에는 기술, 자본, 고품질 서비스, 통신, 운송, 금융 등의 부분으로 특화하고 준주변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발전 수준을 지닌 제조업,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관리, 부분품 하청 등으로 특화하고 주변에서는 저임금, 저차위 생산을 특화하는 구조이다.

1990년대 이후 국제분업에 관한 연구의 특색은 기본적으로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토대를 견지하면서 산업별 혹은 기업단위별로 국제하청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분업의 패턴과 상품과 산업생산지역과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차원으로 연구초점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분업의 결과 주변부 지역에서도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기존의 세계체제론과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4.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내 통합과 계층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공간적 전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구조는 1980년대 초반부터 역내에서 나타난 내·외적 산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정책의 차이성에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년간 현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초에 나타난 1차 산품의 가격폭락과 세계적인 경제개방추세는 원자재 수출과 수입대체 공업화 위주의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성장전략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비교우위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육성정책으로 수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자국 환율과 임금상승 등으로 산업의 국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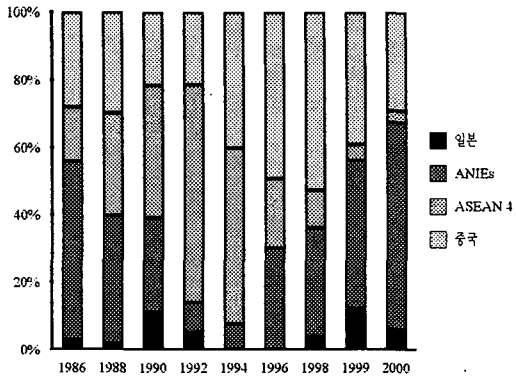

그림 5. 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그룹별 분포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6, 2001

쟁력 약화된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은 노동집약적 고임금의 쇠퇴산업을 아시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동아시아로의 대량 진출과 더불어 생산요소의 지역적 차이에 따른 생산활동의 역내 분업네트워크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역내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신흥산업국→아세안→중국으로 연결되는 큰 흐름을 보였다. 즉 198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신흥산업국에 집중되었던 동아시아 직접투자 유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의 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중국의 투자유입이 증가하면서 아세안 국가의 투자유입 비중은 하락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세안 국가들 및 중국의 투자유입이 감소하면서 신흥산업국의 투자유입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의 공간적 전개는 시기와 지역을 달리해 이루어진 일본과 신흥산업국의 역내 직접투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후술을 통해 밝히겠지만, 1980년대 말 신흥산업국과 아세안간의 상반된 변화추이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흐름이 신흥산업국으로부터 아세안으로 이동하는 한편 신흥산업국의 투자가 새롭게 아세안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1990년대 들어와 아세안과 중국간의 상반된 변화추이는 신흥산업국의 투자흐름이 아세안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신흥산업국의 비중이 다시 상승하면서 아세안과 중국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신흥산업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신흥산업국의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패턴

1980년대 아세안과 중국의 대외지향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과 일본과 신흥산업국의 노동집약적 산업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이 맞물려 동아시아의 역내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비중은 1987년 49.8%에서 1990년 58.6%, 1995년 59.6%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내통합 확대는 1980년대 말까지는 일본에 의해,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신흥산업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원천을 살펴보면,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를 집중시켜온 일본(23.8%)은 1987년 미국(18.6%)을 제치고 동아시아에 가장 많은 직접투자를 한 투자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악화된 국내 산업환경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과 중국에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확대시켜온 아시아 신흥산업국(31.8%)이 일본(24.8%)을 능가하는 최대 투자그룹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신흥산업국을 비롯한 기존 투자국가들이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축소시킨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해 무관심하였던 유럽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역외국가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폐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투자비가 크게 감소하여 유럽기업들이 아시아 진출의 적기로 판단하여 진출을 확대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표 1.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원천

(단위 : %)

구 분	역내로부터 투자유입				역외로부터 투자유입				합계
		일본	ANICs	ASEAN4		미국	EU	기타	
1987	49.8	23.8	25.3	0.7	50.2	18.6	9.1	22.5	100.0
1990	58.6	24.8	31.8	2.0	41.4	11.0	14.0	16.4	100.0
1995	59.8	14.1	43.1	2.6	40.2	15.9	17.8	6.5	100.0
1997	47.7	11.1	34.2	2.4	52.3	11.8	26.9	13.6	100.0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Directory, Vol. VII(Parts I and II): Asia and the Pacific, 2000; JETRO, White paper, 2000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패턴은 1980년대 초까지는 일본·미국이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의 역내 직접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역내 투자유입패턴으로 바뀌었으며, 19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이, 1990년대 초반부터는 신흥산업국이 역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유럽이 새로운 투자국으로 추가되었다.

3) 외국인직접투자의 계층적 구조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원천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입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과 신흥산업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서구 선진산업국들을 중심의 역외 직접투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아세안과 중국은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일본 등 역내 직접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누계기준으로 일본의 외국인 투자유입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역외에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95.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역내에서 유입된 투자는 신흥산업국에서 투자된 4.6%에 불과하다. 신흥산업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역외로부터의 투자유입이 전체 투자유입의 약 75%를, 일본은 약 14%를, 신흥산업국은 10% 미만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유입이 다른 신흥산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역내에서의 투자유입이 51%, 역외에서의 투자유입이 49%를

표 2. 그룹별,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원천(1997)

(단위 : %)

구 분	역내로부터 투자유입				역외로부터 투자유입				합계
		일본	ANICs	ASEAN4		미국	EU	기타	
동아시아	47.7	11.1	34.2	2.4	52.3	11.8	26.9	13.6	100.0
일본	4.6	-	4.6	0	95.4	10.4	57.2	27.8	100.0
ANICs	25.1	13.6	9.6	1.9	74.9	37.6	26.3	11.0	100.0
한국	22.6	5.7	13.9	3.0	77.4	33.6	32.6	11.2	100.0
싱가포르	n.a.	22.5	n.a.	n.a.	n.a.	52.8	22.4	n.a.	100.0
대만	26.3	12.8	13.0	0.5	73.7	30.5	9.2	34.0	100.0
홍콩	45.3	35.1	7.0	3.2	54.7	25.3	16.4	13.0	100.0
ASEAN 4	51.0	17.4	28.1	5.5	49.0	6.9	30.5	11.6	100.0
태국	62.3	36.0	25.6	0.7	37.7	22.0	9.1	6.6	100.0
인도네시아	51.4	16.0	28.6	6.8	48.6	3.0	34.5	11.1	100.0
말레이시아	48.8	18.9	29.0	0.9	51.0	20.9	20.0	10.1	100.0
필리핀	32.4	16.9	15.4	0.1	67.6	27.5	17.5	22.6	100.0
중국	73.7	9.6	63.3	0.8	26.2	7.2	9.2	9.8	100.0

주 : 대만, 필리핀은 1999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는 1998년,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1997년 통계임
자료 : 표 1과 동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과 신흥산업국에서의 투자유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투자유입지역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내투자유입에 있어서 태국은 일본의 비중이 크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신흥산업국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역외투자유입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에서의 커다란 유입을 보이지만 필리핀은 미국에서의 투자유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역내로부터의 투자유입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외로부터의 유입은 26%에 불과하다. 역내투자에 중에서도 아시아 신흥산업국의 투자가 약 2/3를 점하고 있다.

이상의 그룹별 직접투자유입 원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흐름은 3개 그룹 간에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은 미국, 유럽연합 등 역외 선진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세안은 투자유입에 있어서 신흥산업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산업국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중국은 많은 투자유입이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4)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내 통합과정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역내 직접투자 유입 흐름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내 통합과정과 계층적 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역내통합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1990년대 초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의 활발한 역내 직접투자와 더불어 확대되었으며, 특히 아세안과 중국이 신흥산업국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입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각 그룹별 역내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은 역내 국가로부터 유입하는 직접투자는 매우 적으나, 최근 일본에 대한 신흥산업국의 직접투자 확대와 더불어 1995년 일본에 유입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역내로부터의 유입이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신흥산업국의 역내로부터의 투자유입 비중은 역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증가에 따라 1987년 53.1%에서 1990년 48.0%, 1995년 24.1%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역내에서 유입되는 직접투자의 많은 비중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1987년 44%에서 1995년 29%, 1997년에는 14%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반면에 아세안으로부터 유입되는 직접투자는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그 비중은 1990년 2.0%, 1995년 4.4%로 점차 증가되고 있다.

아세안의 역내로부터의 투자유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신흥산업국의 직접투자 확대에 따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47.4%에서 1990년 67.8%로 급속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1990년 초반 이후 신흥산업국의 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됨에 따라 그 비중은 1997년 51.2%로 다소 감소하였다. 역내로부터의 투자유입은 1990년대 이전에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투자유입이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신흥산업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입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중국의 역내로부터의 투자유입은 1990년 대 초반 이후 신흥산업국의 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됨에 따라 중국에 유입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역내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흥산업국으로부터 유입된 직접투자가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표 3. 그룹별, 시기별 외국인직접투자 역내 통합 추이

(단위 : %)

유출국 \ 유입국		동아시아	일본	ANICs	ASEAN4	중국
동아시아	1987	49.8	6.1	53.1	43.5	79.7
	1990	58.6	2.2	48.0	66.9	76.4
	1995	59.8	6.4	42.1	44.7	81.4
	1997	47.7	4.7	25.2	51.2	73.7
일본	1987	23.8	-	44.2	20.1	9.5
	1990	24.8		37.0	27.4	14.3
	1995	14.1		29.4	17.4	9.8
	1997	11.1		13.6	17.4	9.6
ANICs	1987	25.3	6.1	7.3	22.6	69.6
	1990	31.8	2.2	8.9	36.3	61.7
	1995	43.1	6.0	7.7	24.0	69.6
	1997	34.2	4.6	9.6	28.1	63.3
ASEAN 4	1987	0.7	-	0.9	0.7	0.6
	1990	2.0	0	2.0	2.6	0.3
	1995	2.6	0.1	4.4	3.2	2.0
	1997	2.4	0	1.9	5.5	0.8
중국	1987	0.2	-	0.7	0.1	-
	1990	0.1	-	0.1	0.6	
	1995	0.1	0.3	0.6	0.1	
	1997	0.1	0.1	0.1	0.2	
세계	각 년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일본 Jetro, 1997, white Paper의 Direct Investment Matrix의 방법을 변용; 대만, 필리핀은 1999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는 1998년,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1997년 통계임

자료 : 표 1과 동일

있는 반면에 일본의 비중은 약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동아시아 그룹별 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추이는 일본은 역내로부터의 투자유입은 매우 낮지만 신흥산업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신흥산업국은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역외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아세안은 일본과 신흥산업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이 많으며 그 유입의 변화추이는 1990년대 이전에는 일본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에는 신흥산업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역내로부터의 높은 투자유입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유입은 역내 신흥산업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5. 해외직접투자의 역내 통합과 계층성

1) 해외직접투자의 공간적 전개

동아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1950년대 일본이 천연자원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동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4/5이상을 차지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해외직접투자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신흥산업국 그룹의 해외직접투자가 일본을 추월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신흥산업국의 직접투자가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이 높고 생산 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아시아 개도국에 집중됨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역내로 투자된 비중은 1987년 20.3%에서, 1990년 34.1%. 1995년 53.9%로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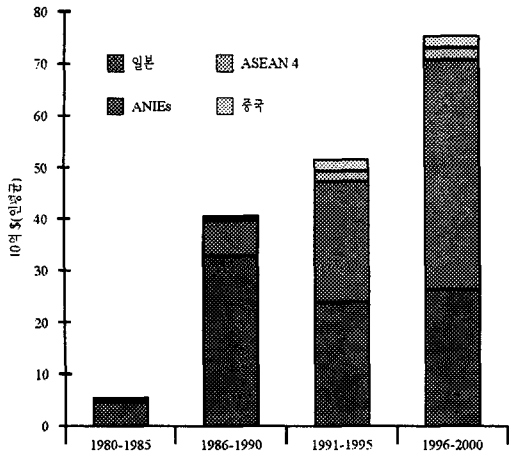

그림 6. 동아시아 그룹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Directory, Vol. VII(Parts I and II): Asia and the Pacific, 1992, 2000; JETRO, White paper, 2000.

역내로 유출된 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분포를 그룹별, 시기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1987년 역내로 유출된 전체 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의

표 5. 역내 해외직접투자의 그룹별 분포

(단위 : %)

구 분	역내로의 직접투자*					역외로의 직접투자	합계
		일본	ANICs	ASEAN4	중국		
1987	20.3 (100.0)	12.8 (63.0)	4.3 (21.2)	3.2 (15.8)	n.a. (-)	79.7	100.0
1990	34.1 (100.0)	22.0 (64.5)	8.0 (23.5)	3.6 (10.6)	0.5 (1.4)	65.9	100.0
1995	53.9 (100.0)	28.2 (52.3)	18.3 (33.9)	6.7 (12.4)	0.7 (1.4)	46.1	100.0
1997	37.2 (100.0)	17.4 (46.8)	15.2 (40.9)	2.3 (6.2)	2.3 (6.1)	62.8	100.0

주 :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통계임

자료 : 표 1과 동일

63.0%, 1990년 64.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신흥산업국의 역내 투자확대와 더불어 1995년 52.3%, 1997년 46.8%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신흥산업국의 비중은 1987년 21.2%, 1990년 23.5%, 1995년 33.9%, 1997년 40.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아세안은 1990년 10.6%에서 1995년 12.4%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7년에는 6.2%로 크게 하락하였다. 중국은 1990년과 1995년 1.4%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는 6.1%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역내로의 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대되어 왔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에 의해, 1990년대 초반부터 신흥산업국에 의해 원동력을 얻었으며,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과 중국이 역내로의 직접투자에 합류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 계층적 구조

그룹별 해외직접투자의 역내에 대한 투자의존과 투자지역은 일본, 신흥산업국, 아세안 및 중국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 1999년 말 누계기준, 일본의 총 해외직접투자액 중 77%가 선진국에 투자된 반면에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은 총 투자액의 약 80%와 60%를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에 대한 투자 비중은 일본 10.2%, 신흥산업국 43.5%, 아세안 54.1%를 보였다. 즉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술수준과 기업의 규모를 지닌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은 개도국, 특히 동아시아 역내에 대한 높은 투자의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의 해외직접투자가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재정적 능력 및 매출 규모가 선진국 기업에 비해 작은 아시아 개도국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표 6. 그룹별·국가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적 분포(1999)

(단위 : %)

구 분	선진국	개도국	동아시아					합계 (%)
				일본	ANICs	ASEAN4	중국	
일본	77.2	22.8	10.2	-	4.8	4.3	1.1	100.0
ANICs*	20.4	79.6	43.5	1.2	8.4	19.2	12.4	100.0
한국	45.1	54.9	40.4	1.9	4.6	11.7	19.4	100.0
대만	26.9	73.1	31.8	1.4	5.8	16.1	5.0	100.0
홍콩	1.2	98.8	98.8	n.a	n.a.	n.a	n.a	100.0
싱가포르	25.6	74.4	50.0	0.8	11.2	23.8	12.7	100.0
ASEAN 4*	39.6	60.4	54.1	3.4	33.0	11.3	3.8	100.0
태국	26.4	73.6	56.6	0.3	24.9	12.8	9.3	100.0
인도네시아	n.a.	n.a.	n,a,	n.a.	n.a.	n.a.	n.a.	n.a.
말레이시아	41.7	58.3	54.0	4.0	34.7	11.1	2.8	100.0
필리핀	83.8	16.2	14.8	0.1	14.7	0	0	100.0
중국	62.3	37.7	17.0	0.8	9.8	6.0	-	100.0

주 : 중국은 1995년까지, 홍콩은 1996년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은 1997년까지, 말레이시아, 한국은 1998년까지, 대만은 1999년까지의 총 투자액 임. 그리고 필리핀은 1997년, 일본 1999년도 투자액 임; * ANICs와 ASEAN 4는 홍콩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국 기준임

자료 : 표 1과 동일

가깝고 문화적, 역사적 유대관계를 지닌 나라에 진출함으로써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요소와 추가 비용 등에서 오는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별 역내 투자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는, 일본은 역내에 대한 투자비중 10.2% 중 신흥산업국 4.8%와 아세안 4.3%로 이들 두 그룹에 대한 투자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신흥산업국은 역내 투자비중 43.5% 중 아세안 19.2%와 중국 12.4%로 이 두 그룹에 대한 투자가 전체 동아시아 투자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에 대한 투자비중 54.1% 중 신흥산업국 33.0%, 아세안 11.3%로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의 경우 역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17.0%로 낮으며 대부분의 역내 투자는 신흥산업국(9.8%)과 아세안(6.0%)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그룹별 투자지역의 계층성은 투자국가의 기술수준과 기업의 규모와 투자유입국가의 산업구조와 산업환경과 관련된다. 일본의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과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의 풍부한 질적 노동력을 지닌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의 선호와 관련된다. 신흥산업국의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흥산업국의 기술수준과 기업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직접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생산기술 수준과 기업규모는 이들 지역으로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5] 그리고 아세안 및 중국의 신흥산업국에 대한 투자집중은 아세안 및 중국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시장의 규모가 작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선진국에 비해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이 적은 신흥산업국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외직접투자의 역내 통합과정

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역내통합을 그룹별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역내 직접투자의 공간적 전개와 흐름의 계층적 구조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생산활동 분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역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비중은 1987년 7.7%에서 1990년 12.2%, 1995년 23.2%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일본 역내 투자의 그룹별 투자분포는 신흥산업국은 1987년 3.4%에서 1990년 5.9%, 1995년 6.3%로, 아세안은 3.3%에서 5.7%, 8.1%로, 중국은 1.0%에서 0.6%, 8.8%로 모든 그룹에 대한 투자비중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과 중국으로의 투자 집중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기업이 역내 분업구조 형성 전략에 따라 각 그룹이 제공하는 생산요소에 적합한 생산활동을 투자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시아 신흥산업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생산거점을 적극 모색하면서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홍콩을 제외한 3개 신흥산업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역내에 대한 투자 비중은 1990년 약 53%에 달하였다. 그러나 투자지역의 다변화 전략에 의해 역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그 비중은 1997년 44.2%로 감소하였다.[6] 신흥산업국 역내

투자의 그룹별 분포 추이는 일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투자가 신흥산업국, 아세안,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다. 신흥산업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1987년 5.8%에서 1997년 13.2%로,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1990년 10.4%에서 1997년 12.2%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아세안에 대한 투자비중은 1987년 45.9%에서 1995년 24.9%, 1997년 17.2%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동아시아 역내에 높은 집중을 보이고 있으나 그 비중은 신흥산업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0년 72.3%에서 1995년 55.7%, 1997년 51.3%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역내에서의 투자지역은 일본과 신흥

표 7. 그룹별, 시기별 해외직접투자 역내 통합 추이

(단위 : %)

유입국 \ 유출국		동아시아	일본	ANICs*	ASEAN4**	중국
동아시아	1987	20.3	7.7	53.0	70.7	n.a.
	1990	34.1	12.2	52.7	72.3	4.5
	1995	53.9	23.2	50.3	55.7	16.6
	1997	37.2	10.2	44.2	51.3	37.7
일본	1987	0.8	-	1.4	24.0	-
	1990	0.4		2.1	17.0	0.2
	1995	0.4		2.3	1.1	0.8
	1997	0.2		1.6	0.5	0.9
ANICs	1987	4.6	3.4	5.8	46.3	-
	1990	5.0	5.9	9.9	51.3	2.9
	1995	9.5	6.3	11.0	35.6	9.8
	1997	6.0	4.8	13.2	29.3	24.5
ASEAN 4	1987	8.9	3.3	45.9	0.1	-
	1990	7.3	5.7	29.6	3.9	1.4
	1995	12.4	8.1	24.9	14.3	6.0
	1997	6.6	4.3	17.2	15.6	12.3
중국	1987	6.0	1.0	0***	0.3	-
	1990	21.4	0.6	10.4	0.1	
	1995	31.6	8.8	12.0	4.7	
	1997	24.4	1.1	12.2	5.9	
세계	각년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일본 Jetro, 1997, white Paper의 Direct Investment Matrix의 방법을 변용. 말레이시아 1998, 일본, 한국, 대만 1999년, 기타 국가는 1997년 통계기준임; * ANICs는 홍콩을 제외한 3개국 기준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합계 임; ** ASEAN 4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국 기준 임

자료 : 표 1과 동일

산업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되는 반면에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즉 1987년, 1995년 1997년을 비교해 보면 아세안에 대한 투자비중은 0.1%에서 14.3%, 15,6%로, 중국은 0.3%에서 4.7%, 5.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투자비중은 1990년 17.0%에서 1995년 1.1%, 1997년 0.5%로, 신흥산업국은 51.3%에서 35.6%, 29.3%로 감소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 역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1990년 4.5%에서 1995년 16.6%, 1997년 37.7%로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즉 신흥산업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1990년 2.9%에서 1995년 9.8%, 1997년 24.5%로, 아세안은 1.4%에서 6.0%, 12.3%로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그룹별, 시기별 역내 투자의 추이는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생산활동의 분업체계를 통한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 신흥산업국, 아세안,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중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의 역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매우 높으나 역외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비중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역내투자의 분포 추이는 신흥산업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 비용 확보와 시장 확대 전략에 따라 중국과 신흥산업국의 투자비중이 증가된 반면에 아세안에 대한 투자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아세안은 아세안과 중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점차 증대되었으나 일본과 신흥산업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되었다. 중국은 역내투자를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으며 신흥산업국과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이 동아시아 역내 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직접투자 흐름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직접투자 흐름의 그룹별 ·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 직접투자 흐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아세안과 중국의 대외지향적인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과 일본과 신흥산업국의 내 · 외적 생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 정책이 맞물려 직접투자의 역내 통합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직접투자의 역내통합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는 신흥산업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및 중국의 역내 직접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아시아 신흥산업국의 직접투자가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거리 및 문화의 이질성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이 적은 동아시아 역내 개도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직접투자 유입은 신흥산업국→아세안→중국으로 연결되는 큰 흐름을 보였다. 즉 신흥산업국에서 아세안으로의 흐름의 변화는 일본의 투자지역 변화와 더불어 신흥산업국의 투자가 새롭게 아세안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아세안에서 중국으로의 변화는 신흥산업국의 투자가 아세안으로부터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지역은 그룹 간 기술수준과 기업의 규모, 그리고 산업구조와 산업환경의 차이성을 보이기 때문에 역내 직접투자 흐름은 계층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역내에 대한 직접투자 유출·입 의존은 기업경쟁력이 약한 중국과 아세안 그리고 신흥산업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은 직접투자 유입지역과 투자지역의 다변화에 따라 역내에 대한 의존은 점차 감소되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까지도 역내에 대한 의존이 확대되고 있다. 역내 직접투자 흐름은 유입의 경우, 일본과 신흥산업국은 미국, 유럽연합 등 역외 선진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신흥산업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아세안은 아시아 신흥산업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신흥산업국으로 유입지역이 변화되었으며 아세안으로부터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부터 대부분의 투자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출의 경우, 일본은 신흥산업국과 아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신흥산업국은 아세안과 중국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흥산업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아세안 및 중국의 투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신흥산업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세안의 경우,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주

1)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인 동아시아(East Asia)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Asian) 국가들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를 합한 지역을 의미한다.

2)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투자흐름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투자국의 입장에서 본 것이 '해외직접투자'이며, 피투자국의 입장에서 본 것이 '외국인직접투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흐름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outflow)'와 '외국인직접투자(inflow)'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국제기구, 국제조직 그리고 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를 나타낸 국가들을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분류하여 지칭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르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유고슬라비아 등 7개 지중해 연안 국가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 5개 아시아 국가, 라틴아메리카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4개 총 16개 국가를 '신흥산업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9개 국가를 불확실한 후보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는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을 '신흥산업국의 선두집단'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신흥산업국의 후발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을 더한 8개국을 HPAE(High-Performing Asian Economics)라고 칭하고 있다.

O.E.C.D.는 놀랄만한 경제적 도약을 보이는 국가를 2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역동적인 경제를 지닌 10개의 국가로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과 태국 등 6개 아시아 국가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 멕시코 등 4개 국가를 포함시켰다. 특히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4개 국가를 '아시아 신흥산업경제' 국가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주요 개발도상국가로 중국,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15개를 포함시켰다.

전체적으로 30여 개의 국가들이 다양한 목록들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나타낸 국가로 고려되었다. 이 중 11개 국가가 모든 목록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와 유고슬라비아 등은 적어도 개발도상국가와 산업화된 국가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의 국가들 범주에 속하는 신흥산업국가로 볼 수 있다.

4)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미국과 영국(1950년대)-미국(60년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서구 선진국과 일본(70년대)-선진국 이외에 개발도상국(80년대)로 점차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으며, 투자 분야와 지역도 1950년대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 수출대체를 위한 선진국에 대한 투자에서 1960년대는 주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에 집중되면서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이 시기에 선진국기업에 의한 저임금 노동력의 이용과 판매시장의 확보를 위해 제조업부문에서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 해외직접투자는 감소를 보였으나, 수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선진국기업의 전략이 변화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투자부문도 비제조업분야(금융관련 서비스, 무역관련 서비스, 부동산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개도국들 중 일부 공업화를 달성한 신흥산업국들이 저렴한 노동력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5) 아시아 신흥산업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지역은 각국의 투자정책과 지역성에 따라 국가마다 많은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40%로 아세안과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대만은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직접투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993년 대만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해외직접투자의 의존을 회피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직접투자 및 무역을 촉진하는 '南向政策'을 추진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전체 동아시아 직접투자 중에서 약 1/2씩을 점하고 있다. 홍콩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가 총 해외직접투자액의 약 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0%가 인접국가에 투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한 홍콩의 직접투자의 높은 비중은 중국과의 연계관계 뿐만 아니라, 선진기업들이 홍콩을 중국투자의 주요 경유지로 간주하여 있어, 최종적으로 중국에 투자되는 해외직접투자 중 일부가 홍콩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에도 집계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동아시아 직접투자는 전체 직접투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기업의 인근 아시아지역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화 2000계획(Regionalization 2000)을 추진함에 따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가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6)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산업국의 동아시아 역내 투자 비중이 1987년 87.3%, 1990년 85.2%, 1995년 76.8%, 1997년 80.2%를 나타내었다. 홍콩의 경우 전체 직접투자의 90% 이상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중국에 투자되는 해외직접투자 중 일부가 홍콩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에도 집계 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참 고 문 헌

김경식 역, 1999, 아시아 경제의 논리, 서울: 나남출판.

김남두 외 1997, 동아시아 무역 · 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희주 외, 1997, 아시아 시장과 한국의 선택, 산업연구원.

노재봉 · 유재원, 1994, 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번순, 2002, 아시아 경제, '힘의 이동'-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경제주도권, 삼성경제 연구소.

박시룡, 2000, 외국인직접투자 : 패턴변화와 유치촉진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손병해, 2002, "세계경제의 지역화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철강보 28(11), pp.20-33.

오인식 · 박번순, 1998, "동남아시아 경제구조와 외국인직접투자," 경제정책연구 4.

장윤종 · 전주성, 2000, 글로벌 경제와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서울: 을유문화사.

전재욱, 1996, 중국의 공업화 전략과 외국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의광, 1994,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직접투자," 일본연구논총 7, 45-69

Andreff, W., 1996, *Les multinationales globales*, Paris: La découverte.

Dobson, W., 1997,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특별강연 97-01.

Dollfus, O., 1997, *La mondialisation*,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Fröbel, F., Heinrichs, J. and Kreye, O.,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reffi, G. and Korzeniewicz, M.(eds.), 1994,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London: Praeger.

Jenkins, R., 1984, "Division over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Capital and Class* 1.

JETRO, 1997, *Japanese White Pap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kyo.

JETRO, 2000, *Japanese White Pap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kyo.

Kumar, K., 1982, "Third World Multinational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pp.397-424

Kumar, K., and Kim, K. Y., 1984, "The Korean Manufacturing Multinational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45-61.

Lecraw, D., 1985, Singapore, in Dunning, J. H.(eds.), *Multinational Enterprises, Economic 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New York: John Wiley & Sons.

Michalet, C. A., 1985, *Le Capitalisme mondial* (2nd), Paris: Press Universitaires de France.

Mittelman, J. H.,(eds.), 1996, *Globalization: Critical Reflections*, London: Lynne Rienner.

Mucchielli, J-L., 1985, Les Firmes Multinationales; mutations et nouvelles perspectives, Paris: Economica.

OECD, 1999, "Recent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inancial Market Trends* 73.

UNCTAD, 1992, *World Investment Directory 1992 Vol. I :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and Geneva.

UNCTAD, 1999,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New York and Geneva.

UNCTAD, 2000,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 Cross-border M&A*, New York and Geneva.

UNCTAD, 2000, *World Investment Directory, Vol. VII(Parts I and II) :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and Geneva.

UNCTAD, 2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 Promoting Linkages*, New York and Geneva.

Palloix, C., 1975,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Circuit of Social Capital," in Radice, H.(eds.), *International Firms and Modern Imperialism*, Penguin books.

Paulet, J-P. and Mor, I., 1996, *L'Asia et la croissance*, Paris: ellipses.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www,unctad.org

www.jetro,go,jp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6, No. 2, 2003(355-375)

Structure Hierarchic of the Intra-East Asia Direct Investment Flows

Nam-Cheol Moon*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won University*
(e-mail: mnc83@hanmail.net)

Abstract : Since the mid 1980s, the emergence of the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has been the most remarkable mutation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emergence is creating the new international spacial flows constituted by the developed country, the newly industrialized country and the developing country. According to the a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the Asia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ANICs) into East Asia from the middle of the 1980s, the intra-East Asia direct investment flow has a observable structure hierarchic composed of Japan, ANICs, ASEAN and China. In the inflow of intra-East Asia direct investment, Japan and ANICs flows from the extra-developed country and Japan, AESAN from ANICs, Japan, and China from the ANICs. In the outflow, Japan flows relatively into the ANICs and ASEAN, ANICs into ASEAN and China, ASEAN and China into the ANICs. In conclusion, the emergence of ANICs and theirs role intermediate in the East Asian economy causes the intra-East Asia direct investment flows to make a hierarchical structure.

Key Words : East Asia, Foreign direct investment, ANICs, Intra-East Asia direct investment flows. Structure hierarchic of flows